유로2016 프랑스 알바니아 꺾고 16강 안착

2연승 승점6점으로 24개국 중 가장 먼저 진출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 개최국 프랑스가 24개 출전국 중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다.

프랑스는 16일(한국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알바니아와의 대회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5분에 터진 앙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헤딩 결승골을 발판으로 2-0 승리를 거뒀다. 지난 11일 루마니아와의 개막전에서 2-1로 승리한 프랑스(2승 승점 6)는 2연승을 달리며 남은 스위스전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16강에 올랐다.

알바니아는 우승후보 프랑스를 상대로 대등한 싸움을 벌였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2패째를 당했다.

프랑스가 크게 고전했다. 프랑스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7위이지만, 알바니아는 42위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국가 중 랭킹이 가장 낮다. A조에서도 당연히 최약체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평가전에서 프랑스를 1-0으로 꺾은 경험이 있는 알바니아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프랑스는 전반 볼 점유율에서 62%-38%로 압도했지만 내용에선 오히려 밀렸다. 알바니아는 적극적으로 맞서며 프랑스를 괴롭혔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오히려 프랑스가 위기에 처했다. 후반 7분 상대 크로스를 막는 과정에서 수비수 몸에 굴절된 공이 골포스트에 맞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후반 중반 이후 서서히 주도권을 잡았지만 골은 터지지 않았다.

그러나 알바니아의 첫 승점 획득이 눈앞에 보이던 후반 45분 알바니아의 골망이 흔들렸다. 그리즈만이 아덜 라미(세비야)의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연결해 골을 터뜨렸다.

프랑스는 후반 추가시간에 드미트리 파예(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추가골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파예는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다.

프랑스는 유로2000 이후 16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다.

같은 조의 스위스와 루마니아는 1골씩 주고받은 끝에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스위스가 1승1무(승점 4)로 2위, 루마니아가 1무1패(승점 1)로 3위에 자리했다.

오는 20일 프랑스-스위스, 루마니아-알바니아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동시에 치러진다.

B조의 슬로바키아는 프랑스 릴의 스타드 피에르 모루아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블라디미르 바이스(레퀴야), 미렉 함식(나폴리)의 연속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1993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된 슬로바키아는 처음으로 밟은 유로 본선 무대에서 감격스러운 첫 승을 신고했다.

첫 경기에서 웨일스에 1-2로 패했던 슬로바키아(1승1패 승점 3)는 잉글랜드(1무 승점 1)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통해 8강 진출을 노린다.

러시아(1무1패 승점 1)는 뼈아픈 일격을 당해 토너먼트 진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미드필더 함식은 1골 1도움으로 슬로바키아의 첫 승을 이끌었다. 슬로바키아는 오는 21일 잉글랜드, 러시아는 웨일스를 상대한다.

/김민근기자

프랑스는 16일(한국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알바니아와의 대회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45분에 터진 앙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헤딩 결승골을 발판으로 2-0 승리를 거뒀다.

우석대 사격부 전국대회 6개 메달 획득

우석대학교 사격부가 '제46회 봉황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포함해 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전남 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남자부에서 4개 여자부에서 2개를 획득하는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남자부는 공기소총 단체전 은메달과 50M복사 단체전에서 동메달, 50M복사 개인전에서 2개의 은메달을 획득하며 총 은메달 3개 동메달1개를 획득했다. 여자부는 공기소총 50M복사에서만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우석대 김성민 사격부 감독은 "앞으로 다양한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선수들 개개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맞춤식 훈련을 통해 기량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원광대 볼링팀 전국대회 우승 · 준우승 차지

원광대학교 남자 볼링팀 선수들이 '제1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에 나서 대회 우승과 준우승을 모두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신동수, 정기원, 홍준영 선수로 구성된 원광대 A팀은 12일과 13일 익산한성볼링장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3인조 경기에서 평균 199점을 올려 1위를 차지했다.

이영우, 김준용, 강필승 선수로 구성된 원광대 B팀도 평균 197.2점을 올리며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펼쳐진 마스터즈 대회 역시 신동수 선수가2위, 홍준영 선수가 3위를 차지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원광대 볼링팀 김형태 감독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주고 잘 따라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전국체전까지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대학 최강팀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대한체육회, 박태환 리우올림픽 출전 불가 입장 재천명

국가대표선발규정 준수 결정
도핑 페어플레이 정신 위배

대한체육회가 박태환(27)의 리우올림픽 출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오전 8시 올림픽파크텔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현행 국가대표선발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본부를 인천광역시에 유치하기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23명 중 19명이 참석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출된 박태환 선수 중재 요청에 대해서는 진행 경과보고에 따른 논의 끝에 현행 '국가대표선발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대표선발규정의 당초 제정 취지가 적극 고려됐다. 국가대표 선수는 높은 도덕성과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고려해 선발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한 점과 도핑이 선수의 기본 덕목인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선수들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육회는 또 이 결정을 CAS에 통보하고, 앞으로 중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천광역시'를 OCA 본부 유치 희망 도시로 선정해 OCA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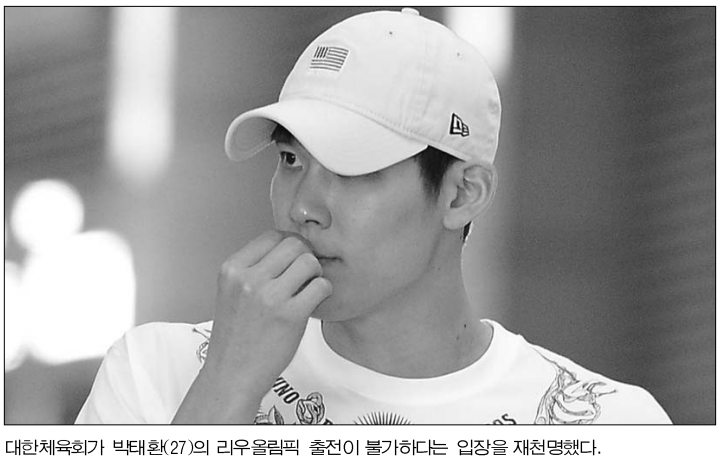
체육회는 지난 5월17일 OCA가 45개 회원국에 발송한 'OCA 본부 이전 후보지 선정 안내문'을 접수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유치 신청을 받아 지난 10일 평가위원회를 열고 단독후보지인 인천광역시를 후보도시로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유치당위성, 도시 위치와 기능 등 국제기구 유치 입지조건을 잘 갖추었다고 판단해 유치신청도시로 선정했다. 이사회는 유치경쟁력 차원에서 비자, 감세 등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과 지지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 및 인천광역시와의 협의를 거쳐 OCA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OCA본부가 한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통합 후 첫 대한체육회장을 오는 10월5일에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키로 하고 현 공동회장 및 임원의 사직기한 등 선거 사무일정을 확정했다. 대한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장선출기구(선수, 지도자, 동호인, 임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를 통해 선거로 선출토록 되어 있다.

통합 대한체육회 회장의 대수(代數)를 (구)대한체육회가 이어온 조선체육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제39대 회장으로 정하고, 창립기념일 역시 조선체육회 창립일인 7월 13일을 그대로 사용키로 의결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로부터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27)이 결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만일 CAS의 결정이 예상보다 미뤄질 경우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김민근기자



대한체육회가 박태환(27)의 리우올림픽 출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추신수, 시즌 첫 멀티히트에 4출루 맹활약

추신수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콜리세움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 경기에 1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 2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상대 선발 소니 그레이를 상대로 1회초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3회 95마일(약 153km) 직구를 밀어 때려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추신수는 그레이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이번에도 직구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맞추는 2루타로 연결했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서도 추신수는 볼넷을 골라 4출루 경기를 만들었다.

/김민근기자